



논리평면 인문논술 가이드북

사실추론 (적용)

- 1 -

[적용] 개념

“(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특정 생각을 추론의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특정 생각/사실을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결론을 묻는 유형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위선자야!”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정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도 위선자라고 생각하겠지요. 이렇게 어떤 견해를 진리와 같이 굳건한 생각, 즉 ‘참인 명제’로 여기고, 여기에 어떤 상황이나 사실, 생각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적용’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러한 적용의 원리가 포함된 문제는 인문논술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3 -

[사실추론] 사례

- ✎ 이화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인문1 기출 2번  
 제시문 [마]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남편과 부인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 ✎ 한양대학교 2021학년도 인문 모의  
 (가)와 (나)의 공통된 논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다)의 ‘어린아이’와 ‘시골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덕목이 지니는 사회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1,200자)
- ✎ 중앙대학교 2020학년도 인문1 기출 2번  
 제시문 (마)의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일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마)와 (사)를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550-570자]

- 2 -

	전제(P)	결론(Q)
적용 기준	사람	위선자
적용 대상	당신	A

여기서 위의 A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전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위선자’입니다.

	전제(P)	결론(Q)
적용 기준	많은 노력	성공
적용 대상	B	합격

B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면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겠지요. “많은 노력을 하면 성공한다”는 생각을 굳게 믿는다면, 매일 12시간씩 공부를 했다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합격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4 -

	전제(P)	결론(Q)
적용 기준	자연을 보호해야	Good
적용 대상	꽃을 꺾었다	C

이번에는 C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대상은 꽃을 꺾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자연을 보호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Good’이 될 순 없으니, ‘Bad’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상이 ‘Good’인지 ‘Bad’인지 판별하라고 요구하는 적용 유형도 있는데, 이러한 유형을 ‘가치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비판·평가 유형이라고도 불리는 유형입니다.

가치추론 말고도 적용 유형은 ‘사실추론, 가치추론, 대안, 논쟁, 견해’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각각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의 원리를 따른다는 특성이 있지요.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추론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5 -

#### □ “(가)에 나타난 A를 해석하고,”

위 논제에 나타난 요구사항은 ‘해석하라’입니다. ‘해석하라’는 서술어는 사실추론 유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구사항이지요. 그럼 여러분, 위 사례의 논제는 어떤 유형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넘어가)

정답은 ‘요약 유형’입니다. 흔히 말하는 ‘설명하기 유형’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설명하라’가 아니고 ‘해석하라’여서 그런 걸까요? “A를 설명하고,”라고 바뀌어도 답은 동일합니다.

왜 ‘설명 유형’이 아닌 것일까요? 설명 유형, 즉 사실추론 유형은 ‘적용’의 원리로 풀어내는 유형입니다. 결론을 추론하기 위한 기준(이론, 관점, 원리 등)이 필요하고, 이

- 7 -

#### [사실추론] 개념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라.”

사실추론이란, 특정 관점의 입장에서 특정 대상이 갖는 의미(해석), 원인, 결과 등을 추론하는 유형입니다. 결론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가치(Good/Bad)가 아니라, 사실(Fact)라고 해서 ‘사실추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추론 유형은 설명 유형, 설명하기 유형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멸칭(?) 이름을 두고 왜 저는 ‘사실추론’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만든 걸까요? 그건 바로, ‘설명하기 유형’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자주 벌어지는 논제 이탈의 오류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몇 가지 사례를 함께 보시지요.

- 6 -

를 바탕으로 대상이 갖는 의미, 결과, 원인 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유형이지요. 따라서 흔히 말하는 ‘설명 유형’이 되려면, 즉 사실추론 유형이 되려면, 논제에서 요구하는 추론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기준이 논제에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A를 해석(설명)하고,”에서는 해석, 설명을 하기 위한 기준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해석, 그냥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 문제를 “(가)에 나타난 A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볼래?”라고 이해하고, A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 □ 논제에 기준과 대상이 존재해야 ‘적용 유형’이다.

우리가 ‘적용 유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논증은 사실상 연역추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논리 이론이 등장하니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연역추론의 기본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늘 사용되는 원리로서 쉽고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 8 -

대전제: 모든 사람 → 죽는다

소전제: 최은식 → 사람이다

결 론: 최은식 → 죽는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았던 ‘소크라테스 3단 논법’이 바로 연역추론의 기본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인문논술에서 대전제는 ‘기준 제시문’에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제시문의 결론 내용이 논제가 요구한 논증의 대전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전제는 적용 추론에서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전제는 ‘적용 대상’으로서, 간단히 ‘대상 제시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상 제시문의 결론(주제)이 곧 소전제’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대상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들 중 기준의 명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이 소전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상의 내용 중 기준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증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 9 -

### 제시문 (가) 철수의 엄마

건강이 최고니까 무엇보다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본분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다.

기준 제시문인 (가)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운동 열심히 → 사람의 본분에 충실”이 될 것입니다. 이 명제가 우리가 풀어야 할 논제에서 대전제로 기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상 제시문이었던 (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농구에 대한 열정이 1등이다”라는 내용이 대상 제시문의 핵심이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논제에서 요구하는 논증의 소전제가 되고, 다른 내용들은 논증과 관련이 없으므로 독해할 때 밑줄 그을 필요도 없었으며 원고지에 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대상 제시문 (나)의 자체적인 주제가 ‘철수는 아이돌급 미남이다.’라고 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논제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제시문 (나)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는

- 11 -

“(가)에 제시된 관점을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철수를 설명하라.”

### 제시문 (나) 철수

철수는 농구에 대한 열정 1등, 내신 1.4등급, 아이돌급 미남이다.

위에 제시된 철수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신이 높다는 부분? 아니면 미남인 부분인가요? 정답은 “알 수 없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위에 제시된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증의 재료 중 하나인 대상 제시문 (나)를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상 제시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지요? 바로 기준 제시문에서 찾아낸 대전제가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준 제시문을 읽지 않았지요? 그러니 (나)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 10 -

것입니다. 그러니 대상 제시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오로지 제시문 (가)가 관심을 갖는 부분, 즉 소전제로 기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외의 대상의 속성이 논술문에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군더더기’가 되며, 논증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알아볼까요? 철수의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철수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지요? “철수는 사람의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다.”가 정답입니다. 이 내용이 연역추론의 결론이 되겠지요.

적용의 원리가 개입된 논술 문제에서의 정답이란, 연역추론의 결론을 지칭합니다. 이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면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겠지요. 논술을 잘 한다는 건, 이렇게 출제자들이 설계한 논리 퍼즐의 정답을 추리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일종의 추리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이런 작업을 잘 수행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논술을 잘하는 사람이니, 글짓기(표현)를 잘한다고 해서 논술에서 고득점 할 거라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 12 -